



사장의 탄생

데이비드 섉스 지음/ 이승연 옮김

2021년 2월 10일 출간 | 판형 147*215 | 428쪽 | 17,800원 | 분야 경제경영

| ISBN 979-11-90030-84-7 (03200) (주) 경제경영 > 기업 경영 // (부) 자기계발 > 성공학/경력관리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가치를 위해 도전한 사람들의 비밀!
베스트셀러 《아날로그의 반격》 데이비드 섹스 화제의 신작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강력 추천

“세상에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사람과 자기 사업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둘은 완전히 다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2017년 조선, 중앙, 동아, 한국경제 선정 올해의 책 《아날로그의 반격》의 저자 데이비드 섹스가 화제의 신작을 가지고 돌아왔다. 디지털 일색인 세상에서 ‘새로운 얼굴을 한 아날로그’라는 트렌드를 의식적으로 주목해 많은 주목과 찬사를 받은 그가 이번에 주목한 키워드는 사장이다. 엄청난 역경에 직면해도, 날마다 자신을 희생해가면서도, 파산의 위협이 목전에 닥쳐도, 그들은 왜 자기 사업을 하는가? 반복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이 끝끝내 버티게 하는가? 《사장의 탄생》에서 데이비드 섹스는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가치를 걸고 대담하게 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의 비밀을 탐구한다.

데이비드 섹스는 다양한 배경, 문화, 철학을 가지고 있는 200명 이상의 사장들을 만나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는다. 시리아 이민자로 생존과 자립을 위해 창업한 제과점 사장부터 기후 변화의 대안을 마련하고자 테크 회사를 설립한 70대 창업가에 이르기까지, 그가 만난 사장들은 업종도, 계기도, 목적도 모두 다르다. 하지만 그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때에 할 자유를 누리고, 그런 대담한 도전 속에서 성공, 실패를 경험하고 감내하고 책임진다”는 점에서 닮아 있기도 하다.

“내가 내 이야기를 더 이상 믿지 못한다면, 이 사업은 내일 중단되겠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진실로 믿지 못한다면, 뭔들 믿을 수 있겠어?”(373p, 7장 21세기 카우보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자신의 그릇이 리더와 멀다고 생각했지만 종업원지주제라는 모험을 통해 함께 기업 경영을 개선하고자 하는 모습, 가족 사업이라는 험난한 도전을 통과하고 있는 2세 사장의 이야기를 통해 데이비드 섹스는 사장이라는 것이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전유물이라기보다 보통의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 도전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누구나 사장의 운명을 타고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변화와 위기의 시대, 누구든 사장이 될 수 있다. “남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현상을 발견해서 짚어내는 재주가 있는 섹스가 아니었으면 찾아내기 힘든 소재”인 평범하면서도 비범한 사장들의 이야기는, 안정적인 월급을 포기할지언정 자기 인생의 진짜 목표에 다가가고 싶어 사업하는 이들에게 든든한 지침이 될 것이다.

매주 그리고 매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실제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만약 사업 첫 해를 넘겼다면, 다음 해에는 어떤 계획을 짤 것인지, 큰 조직을 관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지 책에서 던지는 수많은 질문들과 과제들을 내 일과 일상에 대입해볼 수 있을 것이다.

주식과 재테크의 시대 왜 사장의 이야기를 다루는가? 변화와 위기의 시기, 내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번다는 것

경제적 독립이나 경제적 자유와 같은 유행어가 뜨고 주식, 재테크, 부동산과 같은 일확천금에 관한 이야기들이 넘쳐난다. 반면 다른 한편에선 운이나 시장변화에 내 운명을 맡기기보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또한 내 일의 주인이 되어 경제적 자유와 인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이들도 꾸준히 존재해왔다.

창업과 관련한 대부분의 책들은 방법에 관해 알려준다. ‘성공한 사장이 되는 방법’,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방법’, ‘회사를 성장시키는 방법’, ‘회사를 타 기업에 매각하는 방법’ 등을 다룬다. 혹은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마윈 등 성공한 기업가 이야기를 펼친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마주치는 대다수 사장은 누구인지, 무엇이 그들을 창업의 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일매일을 이겨내고 성공에 이르는지 알려주는 책은 없었다. 데이비드 색스는 많은 창업가들을 직접 만나고 리서치를 하면서 깨달았다고 한다.

“실제로는 여전히 넓은 범위의 창업가들이 자기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들은 비가 새는 우리 집의 지붕을 고쳤고, 내가 먹는 빵을 구웠고, 내 웹사이트를 디자인했고, 내 자동차의 타이어를 교체했고, 내 머리를 손질해주었다.” (30쪽, 프롤로그)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젊은층에 집중되지 않고 전 연령대에 있으며 기술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또한 대부분의 기업가들은 거액의 벤처캐피털을 확보하고 언론 인터뷰를 하며 매년 수십 개 콘퍼런스에 참석하지 않는다. 그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고 싶어 기업가가 돼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대다수였다. BTS가 케이팝의 전부는 아니듯 사장 이야기에 다양한 면모와 색깔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더 늦기 전에 내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 게 아닐까” 화려한 CEO에서부터 작고 소박한 생계형 사업을 만든 사람들까지 매일 창업과 사업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보통 창업자들의 이야기

“그들의 근성이 훌륭하다거나, 사업수완이 좋다는 게 아니다. 나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인간으로서 “끔찍달짝 못하는” 상황을 버텨내고 있는 그들에게서 동지에 같은 걸 느낀다. 빨리 기업을 팔아 큰 돈을 쥐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들이 대세가 되어버린 실리콘밸리의 창업가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감정.” (13쪽, 추천의 글)

저자가 만난 첫 번째 사장 그룹은 출발점에 선 사람들이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이민자 이야기, 사업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삶을 중심으로 창업한 여성의 이야기, 자신의 성공을 공동체에 환원한 사람의 이야기가 그것이다. 두 번째 사장 그룹은 사업을 성장시키기 위해 어려움과 맞서고 있었다. 그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한참 후에야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나, 여러 세대 동안 물려받은 유산을 이어나가고 있거나, 창업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기 위해 자기 자신과 주변 사람들

을 희생시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는 것이야말로 자기 삶의 의미라고 생각하는 70대 노인 창업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데이비드 색스는 말한다. 창업가가 된다는 것은 돈을 버는 방식,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아마도 우리가 사장에 대해 물어야 할 더 중요한 질문은 ‘무엇’이 아니라 ‘왜’일 것이다. 왜 사장이 되는가? 왜 자기 일을 하기로 선택하는가? 왜 평생 그 일을 계속하는가? 개인적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는 가족의 유산을 형상화하기 위해서. 창업가는 흥망성쇠를 겪어내면서 그들은 계속 분투할 것이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내 일을 시작해서 돈을 번다는 것의 의미를 찾고 싶은 독자에게 이 책은 강력한 응원군이 되어줄 것이다.

저자소개

데이비드 색스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뉴욕커> 등에 칼럼을 기고하는 작가, 저널리스트, 연사로, 비즈니스와 문화를 주로 다루고 있다. 전작 《아날로그의 반격》은 <워싱턴포스트>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고, <뉴욕타임스>가 뽑은 2016년 최고의 책 10권에 선정되었다. 2017년 한국에 번역 출간된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교보문고, <한국경제>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고, 2021년 김미경의 인생책으로 꼽혀 많은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사장의 탄생》에서 그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매일 마주치는 대다수 창업가는 누구이고 무엇이 그들을 창업의 길로 이끌었는지, 그리고 매일매일을 버티게 하는지 이야기한다.

역자소개

이승연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졸업했다. 여러 광고 회사에서 일했다. 프리랜서 번역가, 편집자로 일하고 있다. 《아날로그의 반격》, 《생각을 빼앗긴 세계》를 공역했고, 《부당 세습》을 번역했다. 바쁨과 일 없음, 즐거움과 두려움, 자긍심과 무력감을 오르내리는 롤러코스터를 탄 일상 속에서도 좋아하는 일을 계속 찾아서 하고 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차례

추천의 글 _ 박상현(칼럼니스트, 《아날로그의 반격》 옮긴이)

프롤로그 _ 당신은 창업가인가? 그게 아니라면 뭔가?

우리 주위엔 언제나 창업가가 있었다 | 대중문화가 떠받드는 억만장자 영웅들 | 슬로건이 아니라, 해시태그가 아니라 | 창업가, 그들은 누구이고 무엇을 하는가

1부 월급을 포기하고 내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하다

-무엇이 그들을 창업의 길로 이끌었나

1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아주아주 빨리 성장하기,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실리콘밸리라는 시스템 | 누더기에서 갑부로 | 창업가 세계의 3대 성인 | 비밀과 거짓말 |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 실패한 사람의 강연을 듣고 싶어요 | 벤처캐피털이라는 불량식품 | 99.9퍼센트의 다른 종

2장 시리아 이민자 가족의 베이커리

과거를 잃은 사람이 새로운 땅에 뿌리 내리는 법

수피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 이민자, 그들이 할 수 있는 일 | 리틀 시리아 | 이걸 부업이 아니에요 |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 | 마침내 우리 인생을 살고 있어요

3장 평생 처음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

요구 사항도, 허락 구하는 일도 없지만, 나머지는 모두 내 몫

그건 라이프스타일 사업 같네요 | 평생 처음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 | 큰 것이 아름답다? | 밴과 제리의 아이스크림 회사 | 자기 시간과 영역을 지배한다는 것 | 화장실 청소도 내 일이거든 |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우리가 살고 싶은 삶

4장 미국에서 흑인 여성 창업가로 살아간다는 것

다른 흑인 여성도 함께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눈을 감고 성공한 창업가를 그려보세요 | 백인 사업가가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시장 | 사장의 탄생 | 내 세금은 약과네요, 더 번창시켜야겠어요 | 기꺼이 공동체의 얼굴이 되기로 하다 |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 | “이 소녀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전해야만 합니다”

2부 성장과 부침의 시간을 통과하는 법 - 무엇이 그들의 매일매일을 버티게 하는가

5장 사회적으로 깨어 있는 자본주의자
립서비스를 넘어, 가치 있는 사업을 실현하려는 사람들

리더십과 가장 거리가 멀었던 사람 | 가치 경영 | 아프리카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 회사는 주주 이익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하는가 | 공허한 연설로 그치지 않으려면 | 시험대에 오르기 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 종업원지주제는 마법 스위치가 아니다 | 이곳에서는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6장 가족 사업의 위험과 기회
가족과 함께 일할 수 있는가? 그건 바람직한가?

시대에 뒤떨어져 보이는 사업 | 어른이 되어도, 부모 눈에는 애들로 보이죠 | 가족 사업은 숨막히기만 한 일일까 | 잠재적 이점들 | “우리 가족의 전통은 창업가가 되는 겁니다” | 사업, 가족, 그 안의 개인들이 사는 법 | 일이라는 도전, 가족이라는 도전

7장 21세기 카우보이는 무엇으로 사는가
미리 알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지칠 줄 모르는, 동시에 항상 지쳐 있는 | 우리는 그것과 더불어 숨 쉬고 먹고 자요 | 창업이라는 롤러코스터에 올라타는 일 | 경제적 어려움보다 더 힘든 것 |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라”는 헛소리 | 미리 알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야

8장 인생 마지막 창업에 도전하는 70대 노인
내게는 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70대 나이에 테크 회사를 시작하다 | 평생 창업가였던 사람 | 나는 기후 변화에 대처할 방법을 알고 있다네 | 세대를 잇는 창업가팀 | 허락 구하기를 그만두고 나의 일을 시작하다 | 세상의 99퍼센트, 우리 일상을 채우는 창업가들

참고문헌

책 속으로

‘투자할 만한 창업가의 성격’이라는 건 없어도 성공적으로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갖게 되는 자질은 있다. 어려운 시기를 버티고 통과하게 해주는 (끈기나 근성이라는 말은 사용하지 않고) 상황적, 성격적 요소가 있다. 힘든 시기에 운 좋게 큰 투자를 받아서 버티는 사람도 있고, 팀원들의 단합으로 버티는 곳도 있다. 그리고 주어진 옵션이 그것뿐이라서 버티는 사람들도 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존경한다. (13쪽, 추천의 글)

실리콘밸리에서 필요한 기술은 테크놀로지라는 딱지가 붙어 있지만, 사실은 아주아주 빨리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제한 없이,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76쪽, 1장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

고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일부는 관련 분야에서 일을 찾기도 하지만, 엔지니어, 건축가,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른 모든 가능성이 그들에게 닫혀 있음을 깨닫고는 택시 운전을 하거나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된다. 가장 불만스러운 점은 많은 캐나다 이민자들이 본국에서의 특별한 경력과 교육 덕분에 영주권을 받았는데도, 캐나다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민자들은 창업으로 내몰린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이다. (106쪽, 2장 시리아 이민자 가족의 베이커리)

창업가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단일 요일은 독립성이다. 그다지 놀랍지는 않다. 결국 자유는,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창업이 보증해주는 하나의 가치다. 사람들이 쟁취해낸 모든 종류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창업가들이 이 자유를 포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169쪽, 3장 평생 처음 자신을 위해 시작한 일)

가치는 시험대에 오르기 전까지는 그리 의미가 없다. 기회에는 비용이 들고, 돈은 거저 생기지 않으며, 이상은 쉽게 희생된다. 뱍슨 대학교의 세틸 야프 카이저에 따르면, “상황이 긴박해지면, 재정 모델이 개입하면” 그때부터 기업가의 진짜 신념이 시험받게 된다. 그렇게 되면 벽에 써놓은 멋진 슬로건이 지켜지는지 마는지 판가름이 난다. (261쪽, 5장 사회적으로 깨어 있는 자본주의자)

벤처 투자자들과 존경받는 스타트업 인사들은 확신에 차서 사람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당당하고 열정적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빨리 실패하라. 실패를 딛고 전진하라. 실패를 발판 삼아 상승하라. 실패의 잔재로부터 다시 일어나 성공할 때까지 실패하라. 하지만 현실 세계에 나와 보면, 창업가에게 실패는 인생을 뒤흔드는 끔찍한 경험이며, 아무리 찾아봐도 영광이라고는 없다. 창업가는 사업이라는 모험에 뛰어들 때, 자신의 재산과 집, 건강과 가족, 자존심과 정체성, 궁극적으로는 인생 전체에 대해 위협을 무릅쓰는 것이다. 사업이 실패하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364쪽, 7장 21세기 카우보이는 무엇으로 사는가)